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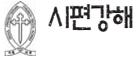
☉ 2007년도 표어 ☉

교회여 진리의 빛으로 다시 서라
-민족을 깨우는 우리교회 (사 51:17, 롬 13:11)

☉ 행동지침 ☉

- 1. 세계 복음화
- 2. 교회 천국화
- 3. 문화 기독교화

† 발행인 : 이 중 윤 † 발행처 :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전화: (02)558-1106 팩스: (02) 558-2107 www.seoulchurch.or.kr



온 세상의 왕께 찬송을

(시편 47:1-9)

본 편에서 시인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며 유대인만이 하나님을 찬송할 특권이 있는 줄로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제1계명인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말씀을 강조하면서 '나는 너를 애굽 땅 중 되었던 곳에서 너를 구원해 낸 하나님 여호와니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이 같은 말씀은 신명기에만 무려 48회가 나옵니다.

유대인들은 여호와 하나님과 다른 신을 대립시키며 자기들만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세상 나라의 왕이 되시므로 온 세상은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야 합니다.



이중윤 목사(서울교회 담임)

세상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고 하나님은 세상을 지배하십니다. 온 세상의 왕 되신 하나님은 공의를 요구하시며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합니다. 나라들이 하나님의 길을 떠날 때 하나님은 그들을 폐하십니다.

1. 하나님 찬송에 국경이 없다

“너희 만민들이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91절).

시인은 하나님 찬양에 만민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상 모든 나라의 왕들을 주관하시는 온 누리의 큰 왕이 되시기 때문입니다(2절).

오늘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주권 사상을 입으로는 시인하면서도 사실상은 부인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그는 왕을 세우시기도 하시고 폐하시기도 하십니다. 우리들의 앓고 일어섬을 낱알이 보시고 심지어는 머리카락의 수까지도 세시는 분이십니다.

영국이 낳은 세계적 역사학자인 아놀드 토인비는 12권으로 된 '역사의 연구'라는 책을 1934년부터 1961까지 저술하여 출판했습니다. 그는 이 책에서 34개의 문명을 말하며 이들 각각의 문명은 역사의 페이지를 장식했다가 사라져 갔다고 말합니다. 애굽은 한동안 세계적 힘을 가졌었지만 오늘날은 한없이 약해졌습니다. 바벨론도 큰 권세를 가졌었지만 그 영토는 분열되었고 유전이 발견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헬라와 로마도 무너졌고, 소련연방도 붕괴되었습니다. 지금은 미국이 힘의 정점에 있지만 역사의 법칙에 예외는 없어서 언젠가는 쇠잔하게 될 것입니다.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잠 14:34). 하나님이 보시는 역사의 기준은 공의와 죄입니다. 공의를 이루고 있을 때는 부강한 나라를 세워 주시지만, 죄가 넘길거릴 때는 여지없이 쇠잔케 하고 망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역사를 운영하시는 법칙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이 강대해지고 승리할 때 자기들 스스로 나라를 규제하고 세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고 하나님은 세상을 지배하십니다. 온 세상의 왕 되신 하나님은 공의를 요구하시며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합니다. 나라들이 하나님의 길을 떠날 때 하나님은 그들을 폐하십니다.

이것을 강조한 책이 다니엘서입니다. 벨사살 왕의 연회장에 나타난 손가락은 벽에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 (단 5:25)이라고 썼습니다. 이것은 벨사살 왕권을 끝내고 메데와 파사로 분열될 것이라는 예언으로 결국 벨사살은 죽임을 당했고 다리우스가 등극하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4절).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열방의 만민들을 자기들의 발아래 복종케 하시고 야곱의 영화, 곧 가나안을 기업으로 주셨으니 하나님을 찬송해야 마땅하고, 이방인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불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으니 또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므로 그 누구도 하나님 찬송하는 일을 자기들만의 전유물인 것처럼 교만하면 안 될 것입니다. 찬송은 무시로 드러야 하며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멈출 수 없습니다.

온 세상의 큰 임금인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에는 열방의 만민들이 총동원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2. 하나님은 찬송 중에 올라가신다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중에 올라가심이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5절).

이 말씀은 죽음에 빠져있는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고난의 땅에 내려오신 하나님이 불의한 것들을 깨뜨리시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 후에 백성들이 찬송과 나팔 소리를 크게 낼 때에 영광을 받으시는 모습을 시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6절).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은 하나님께 대한 성도들의 감사와 찬양에 비례하여 상승합니다. 그러므로 정말 하나님을 존귀하게

해드리고 싶다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의 행적을 찬송하는 일에 보다 더 적극적이어야 합니다.

3. 찬송하는 자세

하나님을 찬송하는 방법은 다양하지만 본편에서는 4가지로 강조합니다.

① 손뼉을 치며 찬송하라(1절). 손바닥을 치는 것은 상대방을 환영하고 존경하고 지지하거나 보답의 표시입니다. 이 4가지는 하나님께 찬송하는 사람들이 갖추어야 할 태도입니다. 형식도 중요하지만 이런 정신으로 찬송을 불러야 합니다.

② 즐거운 소리로 찬송하라(1절).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은 가사와 곡조, 그리고 부르는 태도까지도 모두 즐거워야 합니다. 절망하는 태도나 우울한 심정으로 드리는 찬송은 적합한 제물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찬송할 때 눈물을 흘릴 수는 있으나 그것은 슬픔 때문이 아니라 분에 넘치는 은총에 대한 기쁨과 감격으로 인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③ 드높이 외치는 찬송을 하라(1절). 찬송은 하나님 자신을 찬양하는 노래이기 때문에 마음껏 소리쳐 불러도 지나칠 것이 없습니다.

④ 지혜의 시로 찬송하라(7절). 찬송을 할 때는 그 내용을 알고 신묘한 가락에 맞추어 노래해야 합니다. 공중에 흩어져 버리는 목소리, 허만 놀리는 노래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찬송이라는 명목으로 하나님의 성호를 모독하는 일이 없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 날마다 영광의 찬송을 부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 이중윤 목사 방송설교 ■

- TV : 케이블 CH 42(기독교TV) 매주 월 오후 1시30분
- 위성 CH 412(CBS TV) 매주일 밤 9시(각 지역별로 케이블 TV로도 시청가능)
- KISB(코리아 위성방송) 제3채널(북중미 지역 해외방송) 매주 월 오후 1시30분(한국시간)
- 라디오 : HLKY 98.1 MHz(기독교 방송) <성서강해> 매주 화 오전 5시30분
- HLXK 106.9 MHz(극동 방송) <생명은 빛으로> 매주 금 오전 9시
- 인터넷 : 기독교 TV (<http://www.cts.tv>)
- 기독교 방송 (<http://www.cbs.co.kr>)
- 중국어 인터넷방송 (<http://www.c-highway.com>)

북한 구원을 위한 2007 서울 금식 통곡 기도회

3월29일(목) 오후 5시 본당에서

전국의 목회자와 성도가 한자리에 모여 북한의 구원과 조국이 처한 현실을 하나님 앞에 내어 놓고 금식하며 눈물로 기도하는 '2007 서울금식 통곡 기도회'가 우리교회에서 열린다.

이번 기도회는 북한구원운동(대표회장 이종윤 목사)와 북한 자유를 위한 KCC(회장 손인식 목사)가 공동 주최하는 것으로 북한의 신앙자유를 위해 통곡 기도를 하게 된다.

통곡기도회는 지난해 3월1일, 서울 영락교회당에서 처음 열린 후 전국 주요도시를 순회하면서 수 많은 성도들이 회개와 북한의 구원, 신앙의 자유를 위해 기도하였으며 1년 만에 다시 서울로 돌아와 우리 교회당에서 열리게 된다.

이날 기도회에 참석하는 모두는 저녁 한 끼를 금식하며 난국에 처한 오늘의 현실을 역사의 주권을 쥐고 계신 하나님께 통곡으로 아뢰고 긍휼을 기대한다.

이종윤 목사 저서 - 일본어로 번역

「예수의 비유」 번역 이미 시작돼

이종윤 목사 저서를 일본어로 번역하고 있는 일본인이 있다. 일본국 도쿄에서 살고 있는 치바 집사는 현재 이종윤 목사의 저서 중 <예수의 비유>를 자비량으로 번역하고 있어 우리에게 신선한 충격을 던져 주고 있다.

치바 집사는 앞으로도 <예수의 기적>과 <요한복음 강해>도 번역하여 일본 복음화에 도움이 되기를 소망하고 있어 그의 힘찬 첫걸음이 더욱 기대된다.

이종윤 목사 저서를 번역하고 있는 일본인은 성명이 치바 히데타카(千葉英孝), 54세로 법정대학 법학부를 졸업하고, 일본상지대학, 연세대 등에서 한국어를 배웠다. 현재 재단법인 인사노무전문 출판사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동경에 있는 교회 집사로 신앙생활

을 하고 있다.

그는 현재 일본 성결신학교에서 신학을 공부한 부인과 함께 이종윤 목사의 저서를 번역하고 있다. 슬하에 대학생인 1남 1녀가 있다.



치바 집사 부부

3월 성경통독 시상

-오늘 찬양예배 시간-

3월중에 성경을 통독한 성도들을 시상하는 시간을 오늘 찬양예배 시간에 갖는다. 특히 이번 달부터 성경일천독 대장정을 시작한 성도들이 대거 성경일천독 대장정을 마치고 있어 더욱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이 되고 있다.

성경을 통독한 모든 성도들은 오늘 찬양예배 시간에 지정된 자리에 착석하여 성경통독 시상에 참여하기 바란다.

<성경일천독>

- 필사 : (5교구)황선희 권사
- 3독 : (6교구)유을상 집사 (8교구)김현주 권사
- 2독 : (2교구)정운순 집사 (3교구)김정순 권사 (5교구)이윤영 권사 (7교구)김태기 장로 (8교구)김인식 권사 (12교구)김경철 장로 (대학부)정동호 집사
- 1독 : (1교구)김용광 집사, 박옥순 권사, 박혁 집사 (2교구)이승선 장로, 최복순 권사, 최요섭 성도

- (3교구)최양진 집사
- (5교구)서영애 권사 탄금희 권사
- (6교구)서영세 권사
- (8교구)김대호 장로, 남순덕 권사, 강희자 권사
- (9교구)권봉관 집사, 이성에 권사, 최양자 권사
- (11교구)김하니 선생, 나옥녀 권사
- (12교구)정민도 집사, 박영옥 권사, 이동수 장로
- (13교구)주화인 권사, 김미성 집사, 이미송 집사 정영애 집사
- (14교구)권길자 권사, 김영복 성도, 김철훈 성도 (대학부)노재균, 박수진, 박지연, 예상영 (유년부)박연준

<일반>

- 1독 : (6교구) 강영순 집사, 김민철 집사 (13교구)주영도 집사

100만인 전도운동 1차 열매를 바친다

3월25일(주) 태신자 초청일 찬양예배 시간에

백만인 전도 운동본부(단장: 김광신 장로)는 그동안 태신자를 안고 기도해 오던 신생아의 1차 영적 출산일을 다음주일(25일)로 잡고 성도들의 기도와 전도노력을 독려하고 있다.

따라서 3월 마지막 주일 찬양예배 시간에는 명사초청 신앙간증과 아멘관현악단의 아름다운 선율의 찬양이 준비되고 있다. 지난 3개월 동안 등록된 새가족들도 특별 초청되는 이 시간에 많은 새가족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전도의 풍성한 열매를 바치는 계기가 되도록 하자고 운동본부 관계자는 힘주어 강조한다.

이종윤 목사 설교 CD로 제작

-서적부에서 구입토록-

멀티미디어 시대에 발맞춰 우리교회 담임목사인 이종윤 목사의 설교가 CD로 제작되고 있다.

이번에 제작되는 CD는 가정의 CD 플레이어 혹은 차량에서 꺼긋한 음질로 이종윤 목사의 설교를 들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기존의 카세트테이프보다 부피가 작고 늘 여남 염려가 없어 장기간 보관할 수 있다. 단 현재 제작된 CD는 동영상은 지원하지 않는다. 동영상 지원이 가능한 CD는 추후 제작될 예정이다.

설교 CD는 교회 1층 서점에서 구입하면 된다.

고등부-학부모 초청주일

3월18일(주) 오전 10시10분 601호

고등부(부장: 최차순 집사)는 소망 없는 이 세대에 빛을 밝히는 우리 고등부가 되도록 학부모님들을 초청하여 올해 고등부 교육운영계획을 설명하고 학생들의 영적성숙을 위한 지속적인 기도와 협력을 구한다.

26기 단기전도학교 수료자 명단

전교인 단기 전도학교 수료를 목표로 매주 5일간 실시되고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 3월말로 마지막이 된다.

아직 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성도는 반드시 참여해 주시길 간절히 바란다.

26학기 수료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 고정숙 권희순 김경진 김경희 김순영 김영서 김수호 김인숙 김지희 김현숙 김혜영 남정열 노진아 류수임 박성미 박창희 배은경 서은석 석상화 안병숙 양옥자 윤재숙 윤영숙 원세경 이난화 이덕진 이명옥 이복규 이봉규 이영운 이은미 이인숙 이재순 임상현 정영애 조명옥 조선임 조정란 주만숙 주혜영 주혜민 최죽희 황영숙 허태호 홍정란 황현진 이상 46명

천국시민 양성 - 권사회 수련회

민족을 깨우는 기독교 여성

권사회(회장 이영희 권사)는 지난 15일 민족 교회와 국가를 위해 기도하는 권사로서의 직분을 온전히 감당하며, 사명과 헌신을 다짐하기 위한 권사수련회를 가졌다.

이 날 강사로 나선 이광자 서울여대 총장은 '내려놓음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특강을 하며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나를 주관하시고, 우리 삶에 하나님의 순결한 영이 부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된다. 우리는 자신을 온전히 비우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으므로 하나님께서 국가와 교회와 가정과 개인에게 역사하시는 것을 바라보아야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오직 믿음이다. 믿음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여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이 믿음을 온전히 실천하며 삶의 기독교화를 이루고 혼란과 혼돈에 빠진 조국을 위해 기도하는 기독교 여성이 되자"고 하며 이 땅에서의 21세기의

기독교 여성의 역할을 강조했다. 21세기의 기독교여성들은 기도예 전념하며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미래지향적이어야 한다.

특강에 이어 권사들은 모두 한 마음이 되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섬기는 서울교회를 위해, 권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렸다. 공의로 나라를 세우시는 하나님 앞에 이 나라에 의로운 지도자를 세우실 것과 진리로 민족을 깨우는 서울교회가 되게 해달라는 권사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나라와 한국교회에 다시 한번 은혜의 때를 허락하시리라 믿는다.

일선에서 사역하지 아니해도 교회 구석구석에서 믿음의 본을 보이며 기도의 어머니로, 또 섬기는 여종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고자 하는 모든 권사들의 바람과 무릎이 쇠하지 아니하는 기도로, 진정 진리의 빛으로 다시 서는 교회, 민족을 깨우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한다. <편집부>

천국시민 양성

성경 벌써 다 읽었어요



성경일천독 대장정에 일찌감치 합류한 연준이는 커서의 사도 되고 싶고, 때로는 축구선수가, 때로는 피아니스트가, 또 어느 때는 목사님이 되고 싶은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이다.

7살 때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했다는 연준이는 성경읽기가 이미 일상화 되어 이제는 성경을 읽지 않으면 잠이 오지 않을 정도다. 성경은 주로 아침에, 학교 가기 전 누나와 함께 읽으며 때로는 성경을 묵상하는 Q.T도 한다.

처음에는 어머니가 시켜서 시작한 일이었지만 이제는 스스로 하루에 4장씩 읽는다. 이처럼 성경 읽기는 연준이의 오래된 습관이다. 그런데 올 초, 온 교회 성도님들에게 성경을 한 번씩 읽으라고 하신 이종훈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는 새 학기가 시작하기 전, 방학 동안 성경을 새롭게 완독하겠다고 생각으로 1월 8일부터 2월 20일까지 하루 4-5시간씩, 매일 4-5장을 읽으며 일독을 마쳤다고 한다. 구약을 읽을 때는 발음하기조차 힘든 사람 이름과 땅의 이름이 많아서 힘들었지만 그럴수록 또박또박 읽어나갔다.

처음엔 한 달 동안 성경을 완독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되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힘주시는 가운데 이 일을 이룬 자신이 스스로는 대견스럽고, 전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에 감사드린다고 연준이는 어른보다 더 어른스러운 고백을 한다.

학기 시작 전 성경을 완독한 연준이는 이 일로 한결 자신감에 넘친다. 하나님만 함께 하신다면 무엇이든 할 수 있음을 스스로 체험한 연준이는 친구들에게도 성경 통독을 꼭 권유하고 싶다고 한다.

"친구야, 너희들도 시작만 하면 하나님이 도와 주실거야. 중간에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읽어서 우리나라 지도에 나란히 이름 붙여놓자."

축구도 잘하고 공부도 잘하는 연준이, 무엇보다 말씀 가운데 성장하는 연준이가 하나님 뜻 안에서 아름다운 꿈을 이루기 바란다고 할아버지 박두영 장로는 말한다.

<편집부>

만민에게 전도 - 한자심방을 받고

'맑은 거울' 앞에 설 때

김사라 권사 (5교구)



목사님께서 저희 아버님을 심방하실 예정이라는 연락을 받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론 교회 일이 얼마나 많으실텐데 우리 집 일까지 신경 쓰시게 하나 죄송하기도 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연세가 높으시고 거동이 불편해 교회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신지 한참 되었습니다. 교회 가시고 싶다고는 하시지만 휠체어 태워드리고 차에 싣고 내리는 일들이 도무지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설교 말씀 테이프를 들으시라고 했지만 보편을 누르는 일조차도 힘드신지 "이제 늙어서 기계 다루는 법 같은 건 배울 수가 없다"고 하시며 도무지 하려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집에서 아주 가까운 실버센터에 계시는데 주일, 수요일, 금요일에 예배를 드린다고, 행복해 하셔서 그나마 다행이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목사님께서 디모데후서 4장 7-8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목사님은 아버지께 자녀 위해, 교회 위해 늘 기도하시라며 그것이 남은 생애동안 꼭 하셔야 하실 일이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크게 위로를 받으셨고, 예배 내내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내가 이제 눈이 어두워 성경도 읽지 못하니 믿음이 이렇게 떨어졌다'고 목사님

다녀가신 뒤에도 한참 눈물로 울먹였습니다. 목사님 찾아주신 것 감사하고, '열심히 믿음 생활하지 못해 부끄럽고 죄송하다'고 하셨습니다. 권해 주신대로 성경말씀, 찬송가 테이프, 귀에 꽂고 들을 수 있는 작은 녹음기를 준비해 드렸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려도 나는 늙어서 못한다고 해 애를 태었는데 이제부터 말씀 듣는 일, 찬송하는 일, 기도 열심히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심방을 받으면서 저도 많이 반성했습니다. 이것저것 다 여의치 않더라도 면회 갈 때 마다 성경 읽어드렸으면 좋았을 것을.. 내가 아버지 손잡고 기도했으면 됐을 것을.. 그냥 속스러워 식사 잘 하시는지, 지내시기 불편한 점은 없는지, 필요하신 것 없으신지... 말씀무만 해드리고 왔습니다. 무엇이든 '나는 늙어서 못한다' '안하겠다' 고만 하시는 데는 그만 나도 지쳐서 포기하고 있었는데 목사님 말씀이 제게 큰 위로와 격려가 되었습니다.

목사님 심방 오신다고 하니 어찌 어렵던지, 마지막 날 예수님 계신 곳 '맑은 거울' 앞에 설 때 이럴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언젠가 하늘나라 가면 예수님이 '예구.. 이게 뭐냐..' 그러시면 안 되는 데... '애썼다, 착하다' 그런 말씀 들어야 할 텐데 다시 한 번 저 자신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시는 일 너무도 많으신 데 일부터 시간 내서 찾아주신 목사님, 교구 목사님, 권사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만민에게 전도

잘하셨습니다! 서울 교회여

우리교회는 군선교에 진력하고 있다. 지난 주간에도 신임군목 수련회를 지원했고(사진①), 해병대 교육훈련단과 자매결연식(사진②), 그리고 해병대 신병훈련소에서 524명에게 세례를 베풀고 성찬식을 거행했다.(사진③)



사진 ①



사진 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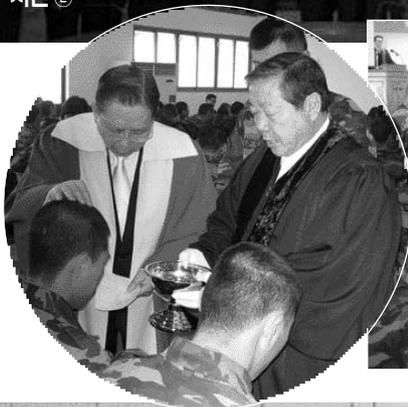


사진 ③



푸른 초장

올해는

- 성경 - 1독 이상
- 전도 - 1인 이상

찬양예배 특별순서

오늘 찬양예배 특별순서는 테너 이진영 선생 (피아노 반주: 장해남 선생)의 독창으로 준비된다. 이진영 선생은 연세대학교 음악대학 성악과 및 동 대학원 졸업한 후 이태리에서 유학(Italy Academia Re Manfredi 졸업) 후 여러 연주회에 출연하였으며, 현재 숭실대학교에 출강 중이다. 피아노 반주를 하는 장해남 선생은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을 졸업한 후 현재 전문 연주자로 활동하고 있다.

연주곡은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최용덕 곡)' 외 3곡이다.

등정

- 이종운 목사는 21일(수)부터 23일(금)까지 서울장신대 춘계 신양수련회에서 설교한다.
- 정성국 목사 안수(성준경 장로 장낙희 권사 사위): 한미 장로교 총회에서 3월13일 안수 받음
- 주간식당봉사: 안드레선교회(3.18) 베드로선교회(3.25)
- 금주의 식사: 배준길 집사 이정임 집사 가정 (자녀 결혼 감사하며) 교회제공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간	
주일예배	I부	오전 9시
	II부	오전 11시20분
	III부	오후 2시
찬양예배	주일 오후 5시	
영어예배	주일 오전 11시20분	
수요예배	I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요기도회	오후 9시30분	
새벽기도회	매일새벽 5시30분	

서울 주간기도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100만인 전도운동에 나도 동참하도록
2. 일천명 성경통독대열에 나도 참여하도록
3. 북한의 신앙자유와 인권을 위한 서울금식통곡기도회 위하여

■ 교회오시는 길

